

**1971**년 1월 1일 소방에 투신한 지 어언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남1녀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풍요롭게 이끌지 못하여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떨구지 못하면서도 18년의 긴 세월을 말단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조그만 긍지와 가족들의 헌신적인 이해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어느날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아버지의 직업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 소방수기

## 소방관 생활을 천직으로

올해 30살이 된 딸애는 그때 아버지의 직업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훌륭한 직업이라며 자신도 소방에 몸담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과연 딸애는 그 이듬해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지금도 진주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의 이해와 격려가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다른 직종에 몸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방관생활 18년. 그동안 수많은 희비가 엇갈려 왔지만 기쁠 때 보다는 괴롭고 고달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괴롭고 고달픈 때마다 힘든 만큼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곧 보람으로 이어져 항상 용기를 갖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화재출동시 울리는 사이렌소리를 듣노라면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더욱 새롭게 다져집니다.

화재현장의 무섭게 솟구쳐 타오르는 화염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해 실제로 소화작업을 하는 도중 생사의 갈림길까지 다다르게 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1987년 10월 3일

대에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 6km 지점에 있는 화재현장에도 도착했을 때 화재는 이미 성화기에 달하여 시커먼 연기와 불꽃이 부근을 온통 뒤덮어 앞을 식별키도 어려웠습니다. 잘 건조되어 산더미처럼 쌓인 포장지와 스티로폼 등은 마치 불에 끼얹어진 기름마냥 거세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화재진압작전은 즉각적인 판단에 의하여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익히 듣고 평소 훈련해왔으나 이처럼 엄청난 화재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선 인명구조를 우선하고자 하였으나 다행히 작업장에 잔여 인원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구역원에 이르는 기계장비보호에 역점을 두고 소화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시설이 공장후면에 위치하여 현장진입이 무척 난감하였습니다.

조금 미련스러운 방법이지만 가시덤불 헤치듯 기계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나는 스스로의 안전을 돌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면을 화염으로 포위당하자 8호차량 기관사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집중적인 급수공급이 없었다면 불고기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시각은 21시30분. 귀서하는 차량속에서 저의 육신이 무사한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콧속과 입안에는 그을음으로 가득 차 호흡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천길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몽롱한 정신속에서 저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잠시나마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직업임에는 틀림

신흥포장공업사에서 일어난 화재는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악몽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무렵인 16시 12분경 화재신고 접보자인 통신근무자가 다급하게 외쳐대던 "신흥포장화재"라는 외마디는 순간적으로 모든 출동요원을 긴장하게 하였습니다.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지를 생산하는 그곳은 화약고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직할파출소 차석으로 있던 저는 출동하면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를 보며 무선으로 긴급 응원출동을 군부

없습니다.

소방관은 화재진압을 위하여 24시간 불철주야 대기생활을 하여야 하며 화재접보시 30초 이내에 화재현장을 향해 출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방업무에 있어 철칙이며 한치의 어김도 있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화재를 당한 당사자도 화염을 보면 제 정신이 아니겠지만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 역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적(화염)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에 늦게 출동했다느니 진압작전이 잘못됐다느니 하는 비난이 수시로 들려와 그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4시간 대기근무한 다음 날인 비번날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도 각종 순찰근무와 화재 예방점검 등으로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 가족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소방관업무의 고달픔은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행하는 봉사는 결코 올바른 봉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봉사가 고마움으로 대하여지지 않고 야유와 비난으로 되돌아올 땐 참으로 가슴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괴롭고 고달플 때마다 그것이 봉사라는 보람에서 금지로 이어지지 않았던들, 가족들의 격려가 뒷받침되지 않았던들, 이처럼 긴 세월동안의 쓰라림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일 겁니다.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소방관 생활은 4년 7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뿐입니다. 저에게 남겨진 이 기간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처럼 봉사하는 일념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한치의 후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생을 지내왔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있는 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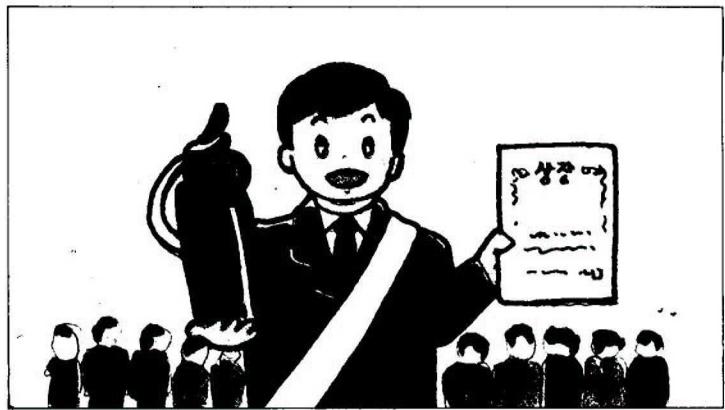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

고생하시는 여러 소방관들과 영광을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소방관이 각처에 수없이 많이 계실텐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소방관 여러분! 소방관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활약을 벌이는 겨울이 다 지나갑니다. 허나 불조심에 계절이 따로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화마로부터 벗어나 복된 사회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제 일생중 가장 명예스럽고 소방생활을 보람되게



방관의 봉사가 없는 사회를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할 위치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혹은 몰라주든 관여치 맙시다. 우리의 업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는 불변의 진리처럼 공직사회를 바로잡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5회 소방안전봉사상을 수상한 본인은 저와 함께

이끌어 주신 공적심사위원회 또한 모자람이 많은 저에게 수상의 영광을 주신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황천수 <경남 진해소방서 소방장>